



心實愛世  
攝信慈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월간·비매품

# 東友會報

1989年(檀紀 4322年) 6月 30日 第141號〔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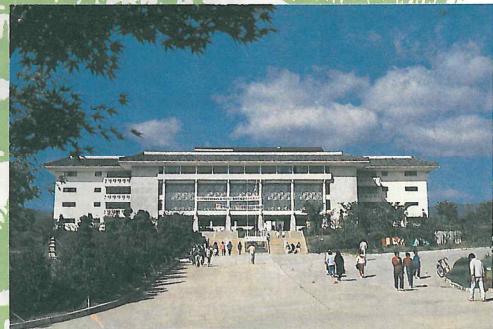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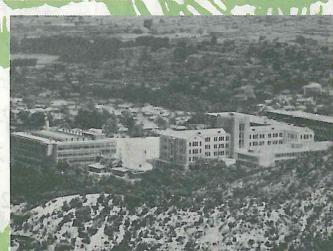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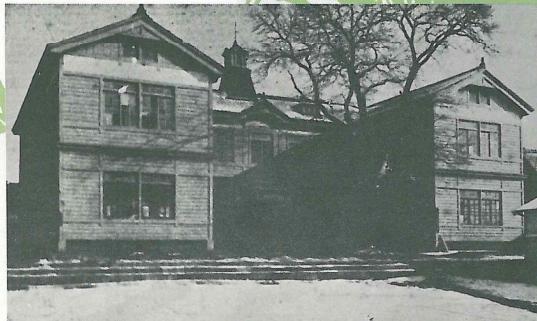
발행인 鄭申在  
편집인 張益炫  
인쇄인 明錫

東國大學校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화빌딩 12층  
전화: 733-3993 (代)  
733-3991, 3992, 3993

우편대체 012328-31-0525669  
은행지로 번호 7500891

## 남산골 옛학우들은 지금 어디에... 8만여 東國人脈이 한권의 책 東國人名錄에서 만납니다

1906년 명진학교서부터 중앙불전·혜화전문·동국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모교가 배출한 동문은 현재 8만여명을 헤아린다.  
본회에서는 올 11월에 완간할 예정으로『東國人名錄』을  
편찬중에 있다.  
동국의 역사와 동국인의 역량을 살펴보며, 그리운 옛 학우들의  
소식을 한사람도 빠짐없이 접할 수 있도록  
많은 동문들의 협조와 성원을 기대한다.〈동문신상카드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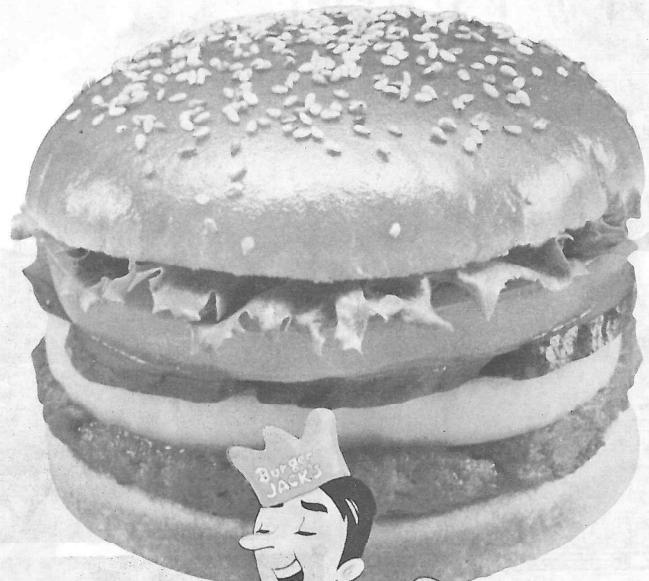
사진설명 中央佛專 당시 세단번인 교무원(左上) 1950년대  
모교 전경(左下) 현재의 명진관(右上) 경주캠퍼스 인문사회관  
모습(右下)

1906 ~ 1989

東友會報



# '88 서울올림픽과 버거잭햄버거의 만남!



햄버거 전문업체 버거잭이  
'88 서울올림픽 전경기장 매장영업업체 및  
대회운영요원 급식공급업체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품질우선, 위생우선,  
서어비스 우선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버거잭은 대회기간 ('88. 9. 17 ~ 10. 2) 중 올림픽 경기장, 올림픽파크 및 축구예선이 있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부산수영만, 오트경기장 등 전 경기장 내 64개 매장에서 양식부문 영업업체로서 여러분과 만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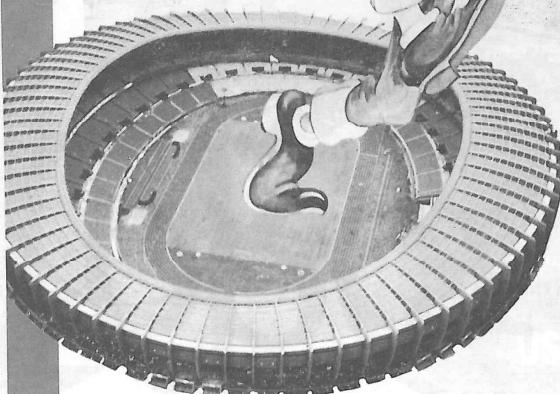
이울러 대회 운영 요원의 영양가 높은 급식을 위해 햄버거 및 앙시세트도 공급합니다.

## ■ 가맹점 모집안내

신청접수처: 직접내사 상담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86-7  
버거잭 프리자(본사)

• 대표전화: 545-8201

Burger Jack's.  
(주) 버거잭 코리아



# 15대 任員陣 7월중 출범

## 會長團 구성후 상무이사등 임원 선임

本會 제51차정기이사회(89.3.16)의결사항에 따라 총동창회 제15대 회장단 및 상무이사·이사진구성이 7월중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다.

이번 구성된 회장단에는 부회장과 지도위원 약간명, 감사 3인이 선임되며, 상무이사 1백인내외와 이사 5백인내외로 구성된다.

15대 임원선임은 기존 14대 임원진과 신임 추천대상자를 중심으로 공연도·참석률·회비납부 실적등의 심사를 거쳐 각期別·學期별로 안내를 두고 최종 결정된 후 정기총회를 통해 추대될 예정이다.

임기 2년으로 활동하게 될 15대 임원진이 정식출범이 되면 본회가 추진중인 「동창회관 건립사업」과 「도고 90년기념사업」 등 현안사업들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 영남지역 동문 낚시대회 총동창회장배…대어상 金正鎬동문

제1회 총동창회장배 영남지역동문 낚시대회」가 지난 6월 11일 오전 10시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에서 영남지역동문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직할동창회(회장=金德壽·65회정·고려조경대교이사)주관으로 열렸다.

경주·대구·포항지역 동문과 교묘·경주·평택·교직원, 부속포함병원 직원들의 친목을 마련하기위해 신설된 이번 낚시대회의 대어상은 金正鎬(75회제)동문이, 다어상은 손봉식(87회정)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 故 趙明基박사

#### 5월14일 추모비 제막

故 晴曉趙明基박사(前교총장·본회고문)의 추모비 제막식이 지난 5월 14일 경기노여주군부내면 묘소에서 조령기박사 기념사업회(회장=黃永壽·전총장)주최로 열렸다.

지난해 5월 25일 수학으로 별세한故趙明基동문은 남다른 농국애로 고교 9대 총장과 본회 고문을 역임했으며 지난 75

## 동국라이온스클럽 총회

東國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월부터 매월 한차례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林錦澤(58회정·대학식민권·理事会長)동문을, 재무부에 林錦澤(67상학·신한은행·롯데월드지점장)동문을 선임했다.

한편 회의는 지난 5월부터 매월 한차례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林錦澤(58회정·대학식민권·理事会長)동문을, 재무부에 林錦澤(67상학·신한은행·롯데월드지점장)동문을 선임했다.

同클럽은 또 南山라이온스클럽과 함께 무의무 히기의료봉사활동을 준비중에 있다.



지난 제51차 정기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따른 본회 제15대 회장단 및 이사진구성이 오는 7월중 완료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51차정기이사회장)

한번 지난 6월날도 마감된 15대 이사추천은 7월 15일까지 연장도록 하여 미처 접수하지 못한 지역·학과·직장별동창회의 추천을 받고 있다.

### 本報 창간 13주년

8만 독류의 葉繩로서 習作해온 본보가 지난 5월 8일로 창간 13주년을 맞았다.

76년 개교기념일을 기해 창간호를 번이래 지령 141호를 기록해 온 「東友會報」은 동문들의 광장으로서 각동창회의 소식과 동문동정, 모교소식들을 전함으로써 동창회와 모교발전에 기여해온 가운데 열린 이 창립총회에서는 초대회장에 강영조(57농학)동문을 선출하고, 고문에는 김인규(56정치·동문발달과)동문을 선임했다.

同會는 앞으로 지역내 동문간에 유대를 돋우고자 그 역할에 충실했을 기해 나갈 것이다.

## 경주직 할동창회·인천지부 定總

### 새 회장에 金德壽·金奉教동문 각각 선출

#### <경주직 할동창회>

경주직 할동창회(회장=李根雨)는 지난 4월에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은 金德壽(65행정·고려조경·大代表·本회이사)동문을 선임하는 등 임원진을 새웠다.

이번 임원선임에서 회장에는 金正鎬(75회정)이 임직호(70행정)·김재일(86행정)·이상기(83경제)·전현균(87법학)동문 등을, 사무국장에는 구본홍(72농학)동문을 각각 선출했다.

다음은 각부별 신임 임원진이다.



명단:

▲총무부장=이종협(86경제)  
▲재무부부장=손봉식(87법학)  
▲조직부부장=김경익(86조경)  
▲홍보부부장=최병익(87행정)  
▲장학부부장=노보봉(87경영)  
▲체육부장=김경영(89경영)

#### <인천지부>

인천지부(회장=秋錦熙·49문학)는 최근 총회를 열어 신임회장에 金奉教(52정치·운수업)동문을 선임하는 등 임원진을 개편했다.

同會는 또 수석부회장에 이상봉동문, 부회장에 홍성우·김평양·탁언복·한주숙·이준우·김영희동문을 각각 선출하고, 명예회장에 김은하동문, 고문에 김동제·안문열·김재택·예명운동문을 각각 위촉했다.

또 전회장인 최경식동문을 상임교문에, 시도위원회으로는 김난길·곽재영·김봉수·박성협·김석을 임명하고 주급회동문을 위촉했다.

한편 同會는 지난 5월 24일 오후 5시 중화루에서 인천부임 동문환영회를 개최하여 최종태(중부수방서장) 박운대(인천화학연

#### 통계과 동창회

##### 수하동에 사무실 마련

통계학과공동회(회장=李光根·74통계·영진시스템 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6시 동창회 사무실 입주식을 가졌다.

同會 사무실은 중구 수하동 63-102호이며 전화번호는 776-3275~6이다.

同클럽은 또 南山라이온스클럽과 함께 무의무 히기의료봉사활동을 준비중에 있다.



## 본회 禹鍾植부회장 別世 지난 5월 10일 영결식 거행

본회禹鍾植(52경제·태평양개발(株)대표이사)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교통사고로 별세했다. 향년 60세.

이날 사고는 오후 8시 30분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판교와 양재를 경계하는 사이트에서 차량충돌로 일어났다.

故禹鍾植부회장의 영결식은 5월 10일 오전 10시 수원시 소재 태평양개발(주) 운동장에서 회사장으로서 거행됐으며, 鄭在哲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본회 회장단 및 이사, 동국라이온스클럽과 東綠會 회원, 徐成煥 태평양개발(주) 회장 및 임직원등의 애도속으로 유해는 천안공원묘지에 안장됐다.

禹부회장은 1930년 충남 공주에서 출생, 고교 경과파를 졸업한 후 한일섬유공업(주) 대표이사, 태평양개발(주) 부사장·사장 등을 역임했고 수원상공회의소장



임원회와 한국·파akistan 경제 협력위원회 부회장을 지냈다.

禹부회장은 또 충동동동회 부회장으로서 3대째 활동해왔고, 東國라이온스클럽 제1부회장을 맡아 보교·동문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열성동국인으로 알려져 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남윤경여사와 1남 3녀.

## 포천지역 동문회 창립

### 초대회장에 장영조동문 선출

포천지역 동문회가 지난 5월 26일 창립됐다.

경기포천 관내 각계 동문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창립총회에서는 초대회장에 강영조(57농학)동문을 선출하고, 고문에는 김인규(56정치·동문발달과)동문을 선임했다.

同會는 앞으로 지역내 동문간에 유대를 돋우고자 그 역할에 주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부회장=김창복(66행정·국민은행 포천점장 사장)

▲이사=이정호(64군부·일동中교자) 박수철(57회원·포천십고교장·본회이사) 최현학(82교원·경북中교장) 양명종(62법학·일동면장)

▲총무=이준웅(65상학·포천 실고교교주)

▲회계=김만(67법학·청학회 계소 사장)

▲감사=윤명호(65입학·광릉농장 대표)

## 71東法會 창립

### 초대회장에 李台潤동문

71년 법학과 졸업동기생들의 모임인 「71東法會」이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 코리아나호텔로 앞뜰에서 3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모임을 가졌다.

졸업후 18년만에 처음으로 만나 우의를 다진 이날 모임에서는 새학년시 법학회장을 시낸 李台潤(강남도시기사(주) 이사)동문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하고 앞으로 동문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연락 =尹琪錫(한국전력공사용지과장·550-6542)

## 순천支會 정기총회

### 신임회장에 박찬재동문

순천시지회(회장= 박주인·59법학·변호사)는 지난 5월 18일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박찬재(대신증券·서무과장)동문, 부회장에 김종식(대교고교)동문을 각각 선출했다.

## 수학과 동창회

### 재학생에 장학금 전달

수학과동창회(회장=宋宗鉉)

에서는 지난 4월 7일 오후 6시

모교 수학과동창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갖었다.

## 캐나다동문회 임원개편

### 새 회장 조방주동문…단체회비도 보내와

캐나다동문회(회장=裴世英)

는 89년도 임원개편을 통해 신임회장에 조방주(58국립)동문,

부회장에 강만근(61법학)동문,

총무부회장에 김진선(60전산)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단체회비 5백불과 함께 보

내온 국회 소식에 따르면 6

월 24일 토론풍문원에서 가족동

인 야유회를 가졌으며, 7월 9

일에는 총동창회장애 친선글프

대회를 열 예정에 있고 2세

들을 위한 대회의 광장 운영과

친선볼링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활

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경영과동창회 总定

### 신임회장에 金鎮文동문

경영과동창회 정기총회가 지난 5월 10일 열려 正白基전회

장·趙熙榮·車壽連교수 등을 3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새 회장에 金鎮文동문을 선임했다.





# 서울시경국장 李鍾國 동문



도 했다.

공화당 서울지부장에

崔載九 동문

崔載九(52국문·본회이사·신민주공화당 부총재) 동문은 최근 신민주공화당의 서울시지부장에 선임되어 지난달 22일 11시 종암당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한국생명보험 사장에

黃龍雲 동문

黃龍雲(54경제·본회 상무이사·대표이사) 동문은 최근 대한화재보험 그룹의 한국생명보험(주) 사장에 내정됐다.

동문은 현재 경찰간부로 최고급기수인 11기생으로 성실한 대기만성이라는 평을 듣고 있으며, 평소 운전하고 합리적인 지휘스타일과 처신으로 경찰내에서 폭넓은 인연과 지지를 받고 있다.

정보업무의 베테랑이지만 선임관을 갖지 않는 게 신조라는 동문은 그간 전남부, 용산, 종로로 경찰서장, 충남도경국장을 역임했으며 87년 치안감으로 진급한 후 치안본부 제2, 제4차장으로 극복해 왔다.

정년퇴임 환영연설

李在福 동문

李在福(43불교)동문의 정년퇴임행연이 지난 17일 대전 중앙관공포홀에서 이동문의 후학들이 석석한 가운데 열렸다.

학교법인 보문학원 이사장, 보문중고교 교장 등을 역임 교직에 평생을 토담아온 이동문은 그밖에 본회 충남지부를 창립 초대회장을 지냈으며 충남 지역 재가불교운동에 앞장서기

에 취임했다.

이동문은 동방생명보험(주)理事, 상무부, 전무이사를 거쳐

# 서울올림픽 공현동문 체육·근정훈장 받아

거상장 李敏煥 동문, 백마장 金思興 동문, 근정훈장 安錫圭 동문



李敏煥동문은 비록 한 여섯 동문이 제24회 서울올림픽 공로자로 선정돼 체육훈장 및 근정훈장을 각각 받았다.

체육훈장 거상장

▲李敏煥(56정치·본회이사·재민평화, 올림픽후원회 회장·사진①)동문은 재학시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과 L A 한인회장, 재민평화의 명예회장, 본회 LA지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에는 서울올림픽 홍보와 중국기자주교포들과의 교류를 위해 北京, 吉林, 長春을 중국 내 한인사회를 방문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朴炳爛(59법학·서울시敎委 부교육감)동문은 문교부 사회과학장을 거쳐 부산대 사무국장, 서울강남교육구청장, 문교부 제3조정관, 国교육정책 실무부 제2조정관등을 역임하는 등 교육행정전문가로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체육훈장 백마장

▲金思興(62법학·체육부장관)

소년국 심의관·사진②)동문은 제 1 무인소장관설 정무조정실 서기관, 체육부 시설과장, 국립체육관 설계부설 등을 역임하며 지난 76년 우수공무원으로 녹군정훈장을 받은바 있으며 최근 부이시관 승진과 함께 체육부 청소년국 심의관으로 제2기부 퇴임했다.

▲嚴三燁(75경희·육군준장·국군체육부대장·사진③)동문은 65년 ROTC 3기로 입관 월남전에 참전했으며 수경사, 특전사, 특공연대장, 분무대 교육단장을 역임해 전투경력을 축적한 바 있다.

진급했으며 서울 올림피셔는 한글선수단 경기총괄임원으로 활약했다.

◇녹조근정훈장

▲安錫圭(60경제·서기관·동력자원부 법무담당관)동문은 모교 졸업후 출근 관계에서 일해온 실무파로 성실하고 친切적이라는 평을 듣는 정통 관원.

▲俞永植(61법학·본회이사·서기관·서울시청 세마를 지도교장)동문은 서울시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국장,同을임직준비단 문서담당관, 서울시 소속내책임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최고 낸 14.26% (B급기준) 수익률 보장!

자유CP는 가장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금액 3,000만원 이상 만기 90일 이상

학습원 투자·행복한 미래  
대한투자금융  
DAHAN INVESTMENT & FINANCE CORP.  
서울명동네거리 투자상담 777 - 4491  
대 표 771 - 06



現代不動產仲介株

全國不動產仲介業協會 代議員

代表理事 副社長 金炯敏 (75 경행)

대표전화 511 - 0781 FAX. (02) 547 - 5742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16-1 명성빌딩 202호

간접한 「한국환경신문」의 발행

인으로 취임했다.  
동포는 그간 「생활환경」「한국환경신문」로 이어 오다가 이번에 「환경신문」로 일상 새도이 장간된 환경분야 전반의 전문홍보지이다.

연락처 : 엠동포 6가 25-6  
(671) 6483-4

韓投信 기획부문에

鄭龍談 동문

鄭龍談(63경제·한국투자신  
터 등수회장·본회이사)동문은  
최근 한국투자신탁(株)  
첨밀리 지점장

에서 기획부으로 영전했다.  
鄭동문은 商銀을 거쳐同じ 회사로 옮기후 감사역, 저축부문장, 응우부부장, 대구지점장, 저축부부장, 영업부장, 기획부부장, 기획조사부장 등을 두루 거쳤다.

[지혜의 …] 출판기념회

宋錫珠 동문

宋錫珠(62철학·본회이사·도교철학교수)동문은 지난달 26일 오후 6시 한국일보사 13층 송현관에서 저서 「지혜의 삶」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천일제약(주) 감사에

金榮一 동문

金榮一(63정치·본회이사·주  
천양교역 대표이사)동문은 최근  
전일제약(주)에서 기획부문에 취임했다.

한편 金동문은 지난해 총학부무역부를 취급하는 (주)천양교역을 개업했으며 본회이사로도 활약 중이다. 연락처 (33) 01700

육군참모차장에 취임

申未業 동문

申未業(68원·육군중장)동문은 최근 단행원·육군수뇌부부에서 육군 참모차장에 임명됐다.

재학시 期회장과 총학회장을 역임한 동문은 윤근수로 윤군의 주요 지휘관석을 모두 역임했다.

電·通협회 사무국장에

崔源福 동문

崔源福(62농학·동협회 서울지부사무국장을 역임했다.

崔동문은 그간 동협회 서울지부 부지도업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

출판학회상 수상자로

尹炳斗 동문

尹炳斗(63법학·법무사대표·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동문이 최근 폐년 저술『서울시출판부록』으로 제12회 「한국출판학회상」저술-연구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정교과서 공장장에

金根樹 동문

金根樹(65경제·서울종합상사대표·본회이사·지도부7월 1일자로 국제라이온스협회 309-1지구자부총재에 선임됐다. 崔동문은 서울중부 라이온스클럽 조대회장, 회장의 309-1지구 한국 부총재 등을 역임했으며 모교 61경제과, 동우회 회장과 본회 이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환경신문】발행인에

朴稚福 동문

朴稚福(60정치)동문은 최근

金동문은 그간 경영기술연구소장, 총무부장, 기획관리부장, 업무부장을 역임했고, 재직동문회장과 본회 이사로 도교와 본회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며 현재 산명연대 행정학과에도 출강증인 학교이다.

농화하회회장에

河德模 교수

교수 식품공학과 河德模 교수는 지난달 24일 고려대에서 열린 한국농화학회 정기총회에서 제8대회장으로 선출됐다.



잊을 수 없는 스승이라니  
가장치도 않다. 어찌 감히 스  
승을 잊난 말이다. 자고보君師  
父一體라 해서 스승의 그림  
자는 밟지 않는다 했으나 아  
무리師道가 험악하기로시니  
스승이 스승답고 제자가 제  
자나우며 굳이 스승의 날을 메  
겨 師恩을 들먹일 필요도 없  
다.

내가 모교 학부에 들어오기  
는 1946년 9월 그러니까 光  
復된 1년 뒤 무려 40대 1의  
경쟁을 거쳐서였다. 사실 독립  
만세를 부르며 우리들의 8월



▲50년 모교국문과주  
▲60년 ~現모교국문교수  
▲모교서관장 · 교육대학원  
장 · 대학원장역임  
▲현한국文學會회장

을 외친다가 우선 공부부터 해  
서 자격부터 갖추러 신사(물레방  
아) > 신사(물레방아) > 漢河潤선생의 천거가  
서서 응시했던 나쳤다.

당시 모교의 許永鑄학장은 非  
儒非俗을 모토로 左右相應의 中  
道를 강조하였기로 정년 장안  
의 碩學이 다투어 모이셨었다.  
따라서 민족진영의 우의이 드  
센가 하면 공산진영의 좌의또  
한 만찬처 않았았다.

물론 정치적 혼미는 분열  
을 자아내어 사회적 문란이 가  
열돼 도단에 빠진 난생고는  
실로 견장을 수 없는 판이었  
다. 그런데 1945년 9월 첫번  
째 한글강습장을 마쳤고, 조선  
어화학회에서 실시한 국어교사사  
격시험에 합격해서 나의 종협  
과 일본 호세이대학 동기동창  
이신 이하운선생의 인도로 약  
간부 교직도 맡고, 아울러 민  
족진영 문화단체의 충분산인  
중앙문화협회에서 발행하는 中  
央旬報과 <解放紀念詩集>의  
편집과 교정을 보게 되어 당시  
저명한 문사들에 빛게 됐고,  
아울러 韓籍和선생에 드  
나들며 자영하시던 출판사인  
藝文閣의 편집도 거들며 생계  
를 유지하던 궁핍한 무렵이었다.

그런데 1948년 서울대학의  
국립대학원 반대로 인한 동맹

유학으로 대학가가 온통 들끓  
었지만 우리 모교는 며칠의 행  
후는 있어도 그 밀물살에 휘  
말리진 않았았다.

더욱이 전차와 마차가 교통  
수단이었던 당시와 안암동이나  
신촌은 출입이 어려운데 우리  
모교는 종로 4가나 을지로 4  
가에서 내려 걸어 오르면 되  
는 학교인데 신종의 기상이  
넓쳐 출강을 오히려 원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대  
우 또한 후했고, 정강하는 학  
생의 신시한 대로 또한 도타  
와서 사제간의 정기는 오늘의  
성 그런 부위가 아니었음을 정  
중히 밝혀 둔다. 정말 보람찬  
상승세였다.

이제 당시의 교강사 가운데  
서 특히 인상적인 몇분을 보  
기로 아래로 진다.

우선 梁柱東선생은 그 신들  
린 얼강으로 해서 당시 하나  
만인 제 1 강당(지금의 출거 지  
은 정각원)이 미어졌다. 특히  
대학가나 맨 뛰여서 태교의 두  
강생 때문에 조금만 늦으면  
자리가 없었다. 歐華亞文中에 딱  
힘이 있는 특강이어서 정말 열  
심히 들었다. 그때 다른 교수  
는 거의 노트를 갖고 불러서  
필기를 시켰는데 선생께서는

있었다.

선생은 점발 산 백과사전이  
있던만큼 그 자상한 강의는  
이름처럼 넘기게 하신 서문

이셨다. 평생 손에서 책을 놓  
지 않았고, 항상 만년필로 문  
헌자료를 옮겨 쓰셨다. 일찍이  
당대를 주름잡는 三大漢學者였  
지만 문의를 하면 응구첩대와  
예시인데, 그典故까지 강그리  
일리 주시고, 미심한 것은 편  
지로 대답해 주신 대자마자  
비의 산 부처이셨다.

그리고 경상에 기부았으시면  
바로 부처님 같은신 金東華선  
생, 지독한 전라도사투리의 金  
仍石선생, 아무리 바쁘셔도 놓  
내 오송총하신 金斗憲선생, 달변  
의 朴鍾鴻선생, 에너지철학을 드  
세우신 표장한선비, 윤리학의 金

葵義順, 清代史의 閔泳珪, 정치  
학의 趙東弼, 경제학의 崔虎鎮  
법학의 金甲洙 선생이 가르쳐  
주셨으니, 실제로 기라석과 같은  
교수진이었다.

하여튼 전차와 마차가 교통  
수단이었던 당시, 우리 東岳에  
오르내리지 않으신 학자라면 이  
상황 정도로 학문의 보고였을  
다. 특히 가랑 李秉鉉선생은 桂  
洞 오락실에서 시시면서 항상  
양주기 거나하니 휘증강의 정  
말로 멋졌다. 그 낙 눈썹과 같  
은 벚마루에 가지런히 놓여진  
난초의 본을 자랑하시면서 특  
별지도까지 해주시는 한편 귀

중문학을 서슴없이 거내 빌려  
주셨고, 또한 方鵠鉉선생은 그  
크신 체구에 정이 넘치는 웃  
음으로 면학의 길을 터서 주



## 당대 碩學 총출강 … 東岳은 학문의 요람 无涯선생 강의는 盟休흔란속에도 미어져

진작 교재가 나와서 청강이 활  
성 수월해졌다. 정년 선생은  
교육이 천직이었다.

그야말로 당시인 아니면 누  
가 가르치겠나는 다행같은 자  
부심이 본분과 사생에 역력  
했었다. 글씨 교단이 무대에서 출  
까지 추셨으나, 그 세묘가 말  
이 아니었지만 그를 조금도 계  
관치 않으시고 목이 쉬고 솔  
이 막히면서 조심으로 가르쳐  
주셨다.

한편 権相老선생은 한문과 문  
학사를 강하셨는데, 역시 손수 쓰  
신 교재와 프린트를 시켜 이  
세한 <朝鮮文學史>로해서 그높

넓은 학문에 새삼 머리를 숙

길이 험난한 趙潤濟, 조선  
문화사의 金全俊, 시조문의 李  
時岐, 기사문화론의 朴鍾鉉, 국  
어학사의 金允經, 국문법의 崔  
鉉培, 그리고 언어학개론의 柳  
應鎬, 국사강독의 黃義教, 국사  
개설의 李丙熙, 고려사의 金庠  
基, 서양사의 趙義高, 동양사의

시되어 귀중본을 큰 가방에서  
꺼내 일일이 들여 보게 하신  
승복해야하는 특수철학의 吳宗  
植선생 또한 우리의 뿌연한 거  
울이었다.

더욱이 문학사조의 金晉燮,

시론과 문학사상의 金起林, 문  
학평론의 白銀, 시강독의 鄭芝  
溶, 영시론의 皮千得, 영어학개  
론의 禹亨奎, 영어강독의 李仁  
洙, 조선시기론의 趙潤濟, 조선  
문화사의 金台俊, 시조문의 李  
時岐, 기사문화론의 朴鍾鉉, 국  
어학사의 金允經, 국문법의 崔  
鉉培, 그리고 언어학개론의 柳  
應鎬, 국사강독의 黃義教, 국사  
개설의 李丙熙, 고려사의 金庠  
基, 서양사의 趙義高, 동양사의

시되어 귀중본을 큰 가방에서

꺼내 일일이 들여 보게 하신  
승복해야하는 특수철학의 吳宗  
植선생 또한 우리의 뿌연한 거  
울이었다.

그러나 실로好事多囉였다.

그야말로 旭日昇天의 東岳에 머  
구들이 가리기 시작했다. 괜히 19

48년 재단의 운영권을 둘러싸

교수회의 발언권이 개개기자 정  
쟁했던 27교수단의 집단사퇴로

말미암아 결속됐던 교수진이 무  
너져 멍담이 학생까지 사직한

교수를 따라 많이 전학하고,

아울러 대학이 신설되는가 하

면 지방에도 공사립대학이 서

는 바람에 우리 모교는 우람

한 기세가 한풀 꺾이었다.  
사실 내가 하마 古稀를 일  
컫게 됐으나 그 당시의 스승  
은 거의 돌아가셨고, 지금 생  
존하신 분으로는 崔虎鎮 · 閔泳  
珪두분이 아직 정정하시다. 특히  
崔虎鎮선생은 태교로 옮기  
신 뒤에 항상 東岳에 관심  
을 끌었으셨다. 그래서 지금도 우  
리 東國대학 그 누구에 못  
지 않은 은사시고, 閔泳珪선생역  
시 모교의 것자기 행사를 통해 당시 우  
리에게 기울이신 정열이 어떠  
했던가가 짚어되고 남는 고마움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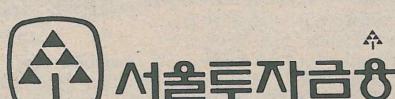
잊지 못하는 스승, 그분네는  
초창기의 스승이셨을 뿐 아니라  
해방과 더불은 혼란기에 우리  
의 젊은 혁신을 간글로 주셨  
기 때문에 한결 풀을하게 다  
가서는 스승의 모습이다. 빛나  
가기 쉬웠던 左右의 갈길길을  
점으로 바로잡아 주셨고, 풀업  
한뒤 통한의 죽임길역 훠여진  
햇마루에 가지런히 놓여진  
난초의 본을 자랑하시면서 특  
별지도까지 해주시는 한편 귀

중문학을 서슴없이 거내 빌려  
주셨고, 또 극진히 인도까지  
해주셨으니 꿈엔들을 있을수  
없는 은혜다. 그런데 시心은  
정말 야살스러워 겨우 몇분에  
한해 기일을 되새겨 성묘를 하  
는 편이 거기에도 후바이 있  
다니 딱한 나의 사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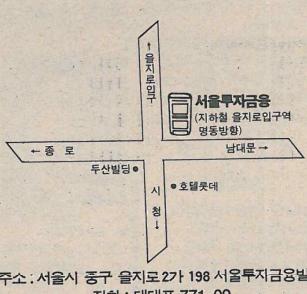
스승들은 스승이 계시되 제  
자다운 제자기 없는 세상, 제자  
다운 제자를 바랄것이 아니라  
내남없이 스승을 스승으로 모시여  
야 하는데, 맘소서 황소가 터보  
듯이 오늘니 비무어 뛰어 활  
소보듯 할 밖이었다. 모름지기 서  
글은 사단이다. 남들은 평생교  
육을 표방하여 교육문제라면 온  
국민이 미리카락을 곤두세우는  
데 글씨 국민교육현장에 효도가  
빠지고 師道가 외면을 당했  
으니 대체 누가누구를 탓하  
랴.

그러나 스승은 평생의 스승  
이다. 반드시 칠판 밑에서 배  
워서만 아니라 저서를 통해서  
도 깨우쳤으면 분명! 스승인데  
갑주더니 뺨엔 끝없이 물론  
그 스승에 그 제자가 있다지  
만 그 제자에 그 스승 또한  
거룩한 법이니 구태여 따질문  
제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사은을 잊다니 맘발  
이다. 하나님을 알아도 더 알고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을 일려도  
못내 흥분한 길로의 인도이셨  
는데, 師道 정말로 河海와 같다.



“항상 성실하고 정직한 소나무정신으로  
신뢰받는 늘 푸른 금융회사입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 을지로 2가 198 서울투자금융빌딩

전화: 대대표 771-09



## 연극영화학과

동문·교수·학생이 하자리에 모여 모교와 동문사회 활동을 모색해보는 「東友鼎談」의 두 번째로 개교83주년과 연영과 창설 30주년을 기념하는 연극「마의태자」의 공연장을 찾아 연극영화과의 얘기를 들어본다.

▲김홍우=개교 80주년을 기해 「조선의 꿈」을 공연한 후 그간 동문들이 회의 걸침되어 1천만원의 기금을 모금했고, 다들 바쁜 가운데서도 이번에 개교83주년과 특히 우리과 창설 30주년을 기리는 「마의태자」를 공연케 됐습니다.

▲박장순=재학생 30여명을 비롯해 70여명이 참여한 공연이라 연영과 전원의 공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인배=同門합동극이라 선 후배간의 우정을 돋우기 하고, 서로를 알게 된 것이 큰 성과지요. 처음에는 출연생과 재학생 각의 여기자이자 염려하는데 재학생 후배들이 열심히 해주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해요.

## 연극통한 先後輩 사랑

▲현덕영=연극 하면 東大가 전통이 있고, 선후배간의 유대도 자타가 인정하고 있죠. 이번 공연은 연극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각자 생업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참여해준 동문들이 뜻에 힘입어 무대에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문제도 어려울 것이라는 선배님들의 협조로 해결해 용기를 갖고 연극을 공연케 됐죠. 학교의 얼굴이 걸린 공연인데 매회 성황을 이뤄 매우 기쁩니다.

▲김=선배는 「神」처럼 여기는 연영과 불변의 情이 이번 공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나 P.D들이 많아

서 이번 공연에 큰 도움이 됐고, 이를 통해 후배들은 시기를 물리고 실력을 키우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이신재=현재 우리동문들은 2백여명이 활동중인에 연극·영화·P.D 등으로 활약하고 있고, 성우·탤런트만도 70여명에 이르고, 그리고 숏적인 면보다도 이분들이 각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애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모교의 자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범희=사실 재학생과 선배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연을 하다보니 전혀 느끼지 못

뿐더러 양계 실기도 중요한데 옛날 재학시절의 시설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건 문제지요. 창설 당시 제일 유통으로 처럼 주제 우리과의 소극장 자랑인데 그게 아직도 그대로 있다는 사실은 재고해 봐야지요.

## 나후된 교육시설 안타까워

▲현=물론 책가방이 크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역시 좋은 환경은 필수적이지요.

▲이=전에 없던 일들을 하거나 하거나 시작한다는 건 그 자체가 날дов입니다.

선후배간의 유대가 좋고 이

때를 이어간다면 후배들의 실력 배양이나 학과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더 큰 것도 해야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작은 일부터 매년 차분히 해나가야지요.

▲현=동문회가 조직된지 7년치기이며 아직은 걸을 만 단계라고 봐야지요. 그렇지만 젊은 언론속에서 「조선의 꿈」과 「마의태자」를 공연한 건 대견스러운 일이 날 수 없습니!

▲한=T.V나 연극을 통해서 접하면서 선배님들과 만나 이번 기회를 통해 선배님이 후배를 알고, 후배가 선배님의 정을 느낀 것 남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다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국장 30년을 벗어나서 대국장 시설이라든지 예술대학의 단일건물을 확보해 연영과의 발전적 면모를 마련하는데 선배님들의 후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 동문·재학생간 교랑필요

▲이=이번 공연은 연영과 30년뿐만 아니라 100년을 바라보는 미팅포인트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선후배간의 지속적인 유대 강화를 바탕으로 학교시설을 보완해서 관객을 학교로 불러들여 성대한 공연을 갖을 수 있기를 회향합니다.

▲김=「마의태자」 공연은 원래 개교기념과 불단일 기념을 겸하려 했다가 공연장소등의 문제로 연기하게 됐는데, 이를 통해 모교의 충고나 동국의 문화전통에 기여하는 빛깔은 공연이었어요. 충돌문화와 학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수의 입장에서 재학생과 동문사이의 교양역할을 잘해줘야 하는데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공연장에서 서로를 알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기회를 갖는 것은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우리과의 발전을 얘기하는 계기가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홍보하기 짜이 없어요.

## 기금모금통한 발전계획

▲한=미국에 있는 동기생까지 참여해 모두가 한마음을 모을 수 있었는가 우리 연극영화학과의 긍지요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틀었던 과거에 못지 않게 연영과의 내일도 밝아야하겠습니다. 선배님과 후배들의 이 열성과 실력이라면 이문제는 그다지 어려운건 아니죠.

▲현=매년 이러한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금도 모으고 하며 학과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봅시다.



▲연영과 창설 30주년기념 「마의태자」공연장면

했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연영과였기 때문에 갖을 수 있는 거라는 자긍심과 가슴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 매년 최고의 입拭경쟁률

▲김=매년 전국의 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과입니다. 앞으로는 인연을 끌어서 연극과와 영화과를 분리, 전공에 맞는 교육을 통해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출입률 70~80%의 출입률도 높여야겠고요.

▲정진=연극영화학과하면 이



## 모교소식

## 동국컨벤션 센터 건립계획

모교는 개교90주년(96년)을 앞두고 대규모 학술·문화공간인 「동국컨벤션센터」(가칭)를 건립할 계획이다.

모교가 중장기 발전계획의 하나로 건립하는 동국컨벤션센터는 문화예술행사를 위한 전문 공연장과 전시장 등을 갖추어 교육·문화·학술의 다른 특성 기능을 수행하며 다양한 정보를 일 반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종교문화행사의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동국컨벤션센터의 건립부지는 지난 87년 모교가 구입해 동국별관과 사용하고 있는 장충동 蔡家祠院 균이 관리로 회관 규모는 연건평 5천 7백평(지하 2층·지상 5층)이며 국제학술회장·극장·콘서트홀·다목적 아트홀·상설전시장 등을 갖추게 된다.

이번 동국컨벤션센터의 건립은 지난 5월 6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동국컨벤션센터」의 밤에서 결

## 慶州 학술조사단

## 국내最古之 伽倻碑硯

도교 경주캠퍸스 학술조사단의 金相植 金英吉 교수는 지난 5월 4일 경남 학천에서 국내 최고의 碑石 일 가능성이 높은 가야비를 발견,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남 학천군 가야면 매안리 동외산기슭에서 발견한 이碑는 높이 2m60cm, 너비 55cm, 두께 30cm의 화강암으로 己亥年이라



◇동국발전의 밤 모교 개교 83주년기념만찬 「동국발전의 밤」이 지난 5월 6일 오후 6시 鄭在哲博士 회장, 李智冠教授, 賴修經재단이사장을 비롯해 교수·동문 등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는 年干支가 음각되어 있어 서기 435년 혹은 495년에 가야에서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X선촬영등의 정밀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발령됐다.

또한 모교당국은 신인 한의과 대학장에 文濟典(한의과) 교수를 5월 8일로 임명했다.

## 大學財政 세미나

서울캠퍼스 교수회 주최로 서울캠퍼스 교수회 회장(회장=金鎔貞)은 「사립대학 재정의 개선방법」에 관한 세미나를 지난 6월 1일 신라호텔 토파즈룸에서 가졌다. 한편 법과대학(학장=韓相範)의 사회과학대학(학장=歐光慶)이 주최한 제 1회 사회과학대학 발표회가 지난 5월 29일 「한국시사회의 갈등과 그 대책」을 주제로 열렸다.

## 불교·상경·한의 대학장 人事

## 地域開發대학원장에는 金耆培 교수 임명

모교당국은 지난 4월 14일로 경주캠퍼스 보직인사를 단행해 지역개발대학원장에 金耆培(경주교과) 교수를 임명하고 상경대학원에는 蕭永基(무역과) 교수, 경주도서관전에는 崔尙浩(불교과) 교수를 4월 24일로

(회계과) 교수를 임명발령했다. 한편 공식 중인 서울캠퍼스 불교대학장에는 吳亨根(불교과) 교수를 4월 10일로 임명되었고 상경대학원에는 蕭永基(무역과) 교수, 경주도서관전에는 崔尙浩(불교과) 교수를 4월 24일로

# 동문교수 4명 華甲 논문 봉정

- ..... 30여성을 대학 강단에서 학문연구와 후배양성을 위해 노력해온 .....○
- ..... 내분의 동문교수가 최근 華甲을 맞이하여 동문과 제자들로부터 기 .....○
- ..... 년논집을 헌정받았다. 논집을 헌정받은 내분 교수의 소식을 모아본 .....○
- ..... <편집자註> .....○

## 세종어문연구論集

李鍾出 세종대총장



李鍾出(54국  
문)동문은 지난 5월 27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세종호텔  
해금강 풀에서  
후학들이 마련한  
한국기념논  
문집「세종어문연구」5,6집 및  
「한국古詩歌연구논문집」을 봉정  
하였다.

李동문은 성균관대와 세종대  
사법대교수, 세종대학장을 역  
임했으며 지난해 세종대의 새  
로운 총장선출방식에 따라 총  
장선출여론 수립위원회와 전체  
교수회의를 통해 총장으로 선  
출된바 있다.

## 한국현대시인연구

金長好 국교교수



金長好(필명  
章湖·54국문)  
동문은 화갑을  
맞아 제자들이  
마련한 기념논  
문집「한국현대  
시인 연구」를  
오늘 5시 모교  
교수세미나실에서  
봉정받았다.

지난 4월 28일 오후 5시 모교  
교수세미나실에서 봉정받았다.



## 印丁一동문 壽誕 莊來會

▲ 병으로 휴양중이던 印丁(72대원·온양·법무·시민학회·동문은  
최근 본회 사무국장을 찾아와 밀쳤던 회비를 내고, 직원들에게  
접심을 대접해 훈훈한 일화。

## 소년家長이 살 전답

▲朴玄惺(75학원·도선사주·  
지·본회상무이사)동문은 부처님

증진시인으로 활동해온 금동  
문은 지난 84년 일본 東京문화  
연구소에 파견된 시절 관동대  
지진을 韓·日교계사의 오욕을  
형상화한 20여편의 연작시 「동  
경끼미기」로 제21회 시인협회  
상을 수상한바 있다.

이밖에도 금동문은 지난 3월  
죽순 시인구락부에서 시상하는  
「제4회 상화시인상」을 수상하  
는 등 詩論학계의 중심으로 활  
동해오고 있는데 현재 보교사  
범대 교수로 후학양성에 힘쓰  
고 있다.

## 한국近代정치사연구

洪淳鉉 정외교수



모교 정치외교학과 洪淳鉉  
교수는 화갑을  
맞아하여 재직  
교수 및 동문과  
후학들이 마련한  
기념논집을  
지난 6월 2일 오후 6시 모교 교  
수식당에서 헌정받았다.

30여년간 한국근대정치사를 연구  
하여 이분야의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남긴 洪교수는 지난 58  
년부터 모교교수로 재직하면서  
현재는 모교법정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박범기념사업회이사, 원호처장

오늘날을 맞아 도봉구관내 소  
년소녀가장들에게 쌀 40kg짜리를  
전달했다.

청소년교화와 사회사업에 앞  
장서고 있는 차동문에게 박  
수를 보낸다.

## 朴龍鷹重訓 회갑맞아

▲ 순천시동창회 前회장인 朴  
龍鷹(53사학·시민학회 대  
본회이사)동문은 지난 5월 18  
회갑을 맞아 지역동문들의 축  
하를 받았다.

## 羅聖奎동문 출장소 開店

▲ 제일은행 섬수동지점장으  
로 재직중인 羅聖奎(65상학·  
본회理事)동문은 지난 28일 관  
내 조양시장출장소를 신설개점  
했다.

책자문위원, 한국정치학회부회장  
 등을 역임한바 있는 洪교수는 그  
동안 「한국근대정치사론」「한국현  
대사의 전개」등 다수의 저서  
와 논문을 발표해왔다.

이번에 간행된 「화갑논집」에는  
鄭用吉교수의 「韓·美·日교사협  
력관계의 문제집」 등 15편의 논  
문이 실려있다.

## 공안행정분야論集

徐載根 경행파교수



교도 경찰  
행정과과 洪淳鉉  
교수는 화갑을  
맞아하여 재직  
교수 및 동문과  
후학들이 마련한  
기념논집을  
터 공안행정분야의 연구논문  
모은 화갑기념 논문집을 헌  
정받았다.

충청북도 및 경상북도 경찰국  
장을 역임한바 있는 徐교수는  
지난 56년 美國 버클리대 경찰  
행정과를 졸업하고 낙주기대  
정치학석사학위와 영남대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범기념사업회이사, 원호처장

## 골프가 좋아시작... 드림랜드 골프연습장

### 洪元杓 동문

도봉구 번동에 위치한 종  
합위탁단지 「드림랜드 골프연습장」을 차린 洪  
元杓(68점기)동문을 찾았다.

『평소 골프를 좋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드림랜드측  
로부터 시설을 임대받아 골  
프연습장을 운영해 놓았죠.』  
지난 5월 10일 개장 이후 아

해 볼의 자동회수는 물론 자  
신이 치 곰 낙하지점을 확  
인해볼 수 있도록 한 점등  
이 자랑거리다.

『골퍼들의 휴식처와 사교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설을 만들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洪元杓동문은 미야상사·미야  
목장 대표로 활동중이며 총  
동창회理事로서 본회발전에



직도 바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洪동문이지만 번듯한 시  
설을 갖춘 매머드 골프연습  
장을 완공해놓은 만족감에 흐  
트러나고.

『약 2천여평, 베지에 비  
거리 1백80야드, 50타선 규  
모』라고 소개하는 洪동문은  
앞으로 비거리 2백50야드  
까지 확장할 계획이며 베지  
를 더 늘려 국내 최대의 종  
합연습장을 꾸며보겠다는 포  
부를 밝혔다.

「드림랜드 골프연습장」의 특  
징은 사방이 「金속인대」 벌  
도전체를 인조잔디로 조성했  
다는 것외에도 야간조명시설  
을 구비해놓은 것과 골퍼들의  
안전을 고려해 타석간격  
을 2.5미터로 넓게 만든 것  
들. 또, 경사진 필드를 활용

연락처 984-7772~3.

도 관심을 가져왔다.  
회비는 남녀 9만원이고 레  
슨비는 7만원, 복사용료는 4  
천원. 또 회원은 드림랜드 놀  
이시설을 무료입장하는 혜택  
도 주어진다. 개장시간은 오  
전 5시반에서 오후 9시.

총공사비 6억원을 투입해  
지나해 11월부터 공사를 시  
작, 7개월여의 큰공사를 마  
무리한 洪동문의 발전을 빙

우리한국의 골프를 활용

## 「진정 東國을 사랑한 「큰별」」

### 同窓會「큰별」잃어

○.... 지난 5월 동창회는 「큰  
별」을 잃은 솔풀에 내내 숙  
연한 분위기다.

총동창회 부회장을 3대째  
맡아 힘써온 韓鍾植부회장  
의 갑작스런 비보에 연일애  
도의 뜻이 전해왔는데.

「東國」구글자민들이 있으면  
죽을 음식을 가지려 않고 뛰어  
나가니시던 모습. 특히 후배  
를 아끼주시던 자상한 모습  
들. 이런 당시 빛을 빛나지 않았던  
진정한 동국인이었던 故禹  
鍾植부회장님의 명복을 빙니다.

## 海外에서 온 편지 한통

○.... 문회도 모든 편지들은  
그 내용들이 각각이다.



정성, 국내 동문들도 본받아  
주시길.

## 近況를 알려주세요

○.... 최근 본회사무국은 올  
가을에 발간될 「東國人名錄」  
작업으로 눈코뜰새 없이 분  
주.

그러나 편집팀을 가장 곤  
경에 빠뜨리는 것은 확인이  
불가한 동문들의 인적사항,  
이것을 확인하느라 자료와  
신문을 뛰어이고 전화를 하  
다 보면 작업속도는 지지부진  
을 면치 못한다고.

이에 본동동동문동문체위  
께 아트노니 본인이나 주워  
분들의 번동권 인적사항은  
꼭 시무국으로 연락해 주서  
서 「동국인명록」 작업에 동참  
하시지 않으실지요.

## 「東國人名錄」은 다함께 만드는 記錄

**대우자동차(株)**

89년신형 정통고급승용차 탄생

(3,000cc) 계약제시  
로알리서스 (로알프린스·듀크)  
월드카트랑 (GSE·옵티마·GTE·레이서)

TEL 553-4712

487-7539 (야간) 판매장: 峴石 (74경영),  
서울 강남구 역삼동82-3 영신빌딩 1층

**全國 林野·상가·빌딩 상담 및 안내**

公認仲介士 정종철事務所

公認仲介士 鄭宗喆 (86경원)

● 全國不動產仲介業協會 理事  
● 城東區 公認仲介士會 會長

전화: (사) 234-4777, 238-9321 ~ 2 (자) 233-5799  
서울 성동구 옥수동 243-35 (국동아파트·정문앞)

**BOSCH SUPER**  
Cu-Electrode  
Thermo Plastic

■ 西独 보쉬 純正品  
연료 절약  
에진저력증가/수명연장  
■ 적용자랑  
현대·대우·기아全車種

수입원: 洋陽商事 (대표:沈載錄·65경영)  
TEL. (02) 213-1392/3107 아프터서비스 244-0997

**信一金属센터(株)**

활동판·동판·활동파이프  
동판지붕재·비철금속

대표이사 金鍾葉 (84경영)

본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5-58  
전화 924-6662, 924-6363

**世進家具有工芸店**

TEL: 736-7887, 2311

■ 가정용 가구 代表 金文煥 (64정외)  
■ 사무용 가구  
■ 혼례용 가구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서대문·독립문·중간)

생일이면 떠오르는.....

**新羅명과**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은 원하십니까?”

소비자 상담실 863-4040

대표이사 홍평우 (70경영)

# 洪性裕 人生劇場

# 洪性裕의 장군의 아들

\* 전 6권 완판!!  
출간 170일 만에 250,000부 돌파!



“  
무장독립군으로  
일본군을 대파한  
백야 김좌진 장군.  
그 빛나는 아버지의  
위업에 도전하는  
주먹황제 金斗漢의  
끌없는 투쟁의 기록!  
”

**朝鮮日報 연재소설**  
**홍성유 인생극장 / 將軍의 아들!**  
**폭발적인 화제 속에 전 6권 완刊!**

홍성유 인생극장 / 장군의 아들은 우리 시대의 신화적 인물 金斗漢을 주인공으로 흥미 진진하게 펼쳐 나가는 사회소설이다. 암울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으로 시작 뜨거운 열기를 뿐어내는 이 소설은 박진감 넘치는 사건전개, 절제한 입담, 생생한 인물 묘사를 통해 소설의 참새기마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金佐鎮 장군의 아들 金斗漢은 임꺽정의 배짱과 독기호테의 진지함, 대부의 근성으로 빼았간 땅에서 주먹개의 황제로 등극. 日帝의 무리들을 한손에 쥐고 뒤흔들며 민족운을 불태웠던 情義 넘치는 巨漢으로, 휘비번는 자의 보호자로, 드디어는 政界의 거물로 거동이 한국 근대사에 우뚝섰던 우리 級代 가장 늄름한 대장부이며 大自由人이었다.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作家가 아심적으로 써낸 이 작품 속의 특이한 인물들은 기상천외한 행위를 연출하면서 우리를 기억힌 인생무대로 소재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드라마틱한 사건들은 우리가 들어온 근대정치·사회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일깨우고 있다.

**日帝의 무리들을 한 주먹에 쥐고 뒤흔들었던**  
**격동의 시대 풍운아들의 국적인 삶과 죽음!**  
**물을 속의 기행과 폭력, 뜨거운 애정과 의리!**  
**한국 근대사의 생생한 모습 (將軍의 아들)!**

에도 正史에도 기록되지 않은 숨한 사람 들이 땅을 강탈한 일본 이주자 그 거리를 배회하는 거지뱅이 접대부들 민족 수난의 암흑기에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하며 자유와 정의의 편에 서서 뉴보시게 활약했던 金斗漢이 비인간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긴 감동의 피문!

\* 전 6권 \* 국판·각권 300면내외/각권 값 3,300원 \* 낮값판매 \* 서점에 있습니다.

**NORTHWEST**

미국여행—  
만족스러운 여행을  
약속드립니다.

노스웨스트에서는 더 많은 미국도시로  
모셔드림은 물론 최소 미화 229불로  
북미노선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먼저 노스웨스트의 USA 패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가시고  
싶은 곳, 계획했던 여행을 시작하십시오.

더 많은 미국도시를 만족스럽게  
여행하시려면 노스웨스트나 여행사로  
전화만 주십시오. 그리고 곧바로 여장을  
꾸미시면 됩니다.

**USA PASSES**

LOOK TO US NORTHWEST AIRLINES